

**Shean.T's Comment**

a. 첫 문장에 some might.. 가 나오니 A의 생각이라 잡자. A는 자신감이 '타고난, 내재된' 것이라 생각. 그렇담 B는 타고난 것이 아닌 무언가가 되겠다. 보통은 '후천적'으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b. Bad news로 한 번 뒤집고 B가 나오나 보니, not A but B의 논리로 확실히 말해준다. '연습(practice)과 반복(repetition)'이 자신감에 중요한 요소, B이다.

c. 이제 중요! 핵심 AB가 나왔으니, 그 뒤는 부연이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확실히 넘어가며 AB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는 거다. 한 번 시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반복해야만 한대라는 내용을 확인만 하면서 **답은 ②번으로 가져!**

**Vocabulary**

1. self-confidence	9. bearable	1. 자신감	9. 참을 수 있는
2. innate	10. survivable	2. 내재된	10. 살아남을 수 있는
3. charge	11. handle	3. 충전하다	11. 다루다
4. without hesitation	12.	4. 주저하지 않고	12.
5. universal	13.	5. 보편적인	13.
6. repetition	14.	6. 반복	14.
7. grant	15.	7. 주다	15.
8. proof	16.	8. 증거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A) might think **self-confidence** is **innate(A)**, or it is enough to feel it once and **charge** through the difficulties of life **without hesitation**. **Bad news**. Self-confidence is certainly **not** innate and there is **no universal confidence(A)**. Practice and active **repetition(B)** make the master. **Standing up for myself once(A)** did start a change in me, but it didn't **grant** me unlimited and never-ending confidence. It was just a **start(A)**, a **proof** that I could be there for myself. If you have this belief, that you're there for yourself, every situation seems more **bearable**, achievable or in my case, **survivable**. The more times you prove to yourself that you are there for yourself(B), and you're enough to **handle** the situation, the more confident you'll be.

- ① 보편적인 자신감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다.(반)
- ② 반복해서 자신을 지지함(B)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 ③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off)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 ④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격려(off)가 있어야 한다.
- ⑤ 지나친 자신감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방해가 된다.(off)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타고난 것이거나, 그것을 한 번 느끼고 망설임 없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자신감은 분명히 타고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은 없다. 실천과 적극적인 반복이 숙련자를 만든다. 한 번 내 자신의 편이 되어 주는 것은 내 안에 변화를 정말로 일으켰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한하고 끝없는 자신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고, 내가 나 자신을 지지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상황이 더욱 견딜 수 있고 성취 가능하며, 내 경우에는 생존 가능하게 보인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지하며 그 상황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입증할수록, 여러분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 Shean.T's Comment

대놓고 PS, 라서 느끼면서 풀기 좋다. 최근 평가원 수능 대의파악에도 대놓고 PS인 지문이 한 문제는 꼭 나오니 챙겨가도록 하자.

a. 네번째 줄까지는 '걸으면서 폰하기 못하게 하는'법이 생겼구나.. 정도 파악하는 느낌이면 된다.

b. but에서 환장. 근데 이 법이 실패함. 뭐가 생김!?! P! 이 P를 해결할 S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P가 심화되는 건가 '생각'하면서 뒤를 읽는다.

c. 다음 문장을 보니 바로 하이테크 기업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투명 화면'을 S로 잡아준다.

d. 그뒤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S가 나오는구나~' 체크하는 정도의 깊이어야지, 이걸 또 막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을 3번 선지에서 'different strategies'로 표현한 것. 이 PS를 정확히 표현한, ③번 선지로 가자!

## Vocabulary

1. call for	9. intervention	1. 요구하다, 요청하다	9. 개입
2. legislation	10. foster	2. 입법	10.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3. norm	11. addiction	3. 규범	11. 중독
4. assumption	12. outdated	4. 추정, 가정	12. 구식의
5. ban	13.	5. 금지하다	13.
6. transparent	14.	6. 투명한	14.
7. pedestrian	15.	7. 보행자	15.
8. adaptation	16.	8. 적응, 각색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city planning experts **called for legislation** against texting while walking that would be followed by a deep change of **norms**. This recommenda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is change is welcomed, **but laws banning texting while walking failed(P)** in Toronto, Arkansas, Illinois, Nevada, New Jersey and New York. Meanwhile, high-tech firms are developing technological **solutions(S)** to the problem, offering **a transparent screen** that allows **pedestrians** to see what is going on in front of them while texting. **Another direction for adaptation(S)** to the problem was provided by city councils via **better urban planning and interventions(S)** to generate awareness. **Some towns and college campuses have put 'look up' signs(S)** in dangerous stairwells and intersections. **Hong Kong added announcements(S)** in its subway system recommending that passengers look around; **New York City reduced speeds for cars**, and **San Francisco fosters pedestrian-only corridors**.

- ① the urgent necessity of regular safety drills(off) in urban areas
- ② the serious effects of tech-addiction(off) on cognitive abilities
- ③ different strategies(S) to address the problem of texting walkers(P)
- ④ unexpected reasons(off) why legislation against texting while walking failed(P)
- ⑤ major conflicts(P) between advanced technology and **outdated** traffic systems

몇몇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규범의 큰 변화가 뒤따라지지도 모르는 보행 중 문자 보내기를 금지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이러한 권고는 이 변화가 환영받는다든가 가정해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행 중 문자 보내기를 금지하는 법들은 Toronto, Arkansas, Illinois, Nevada, New Jersey 그리고 New York에서 실패했다. 한편, 첨단 기술 기업들은 문자를 보내는 동안 자신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 화면을 제공하는,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더 나은 도시 계획과 개입들을 통해 그 문제에 적응을 위한 또 다른 방침이 시의회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몇몇 도시와 대학 캠퍼스는 위험한 계단과 교차로에 '고개를 드시오'라고 적힌 표지판을 세웠다. Hong Kong은 승객들에게 주위를 둘러볼 것을 권고하는 공지들을 지하철 시스템에 추가했으며, New York시는 자동차 제한 속도를 줄였고, San Francisco는 보행자 전용 통로를 조성 중이다.

- ① 도시 지역에서 정기 안전 훈련의 긴박한 필요성
- ② 인지 능력에 대한 기술 중독의 심각한 영향
- ③ 문자 보내는 보행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
- ④ 보행 문자 금지 법안이 실패한 예기치 못한 이유들
- ⑤ 고급 기술과 구식 교통체계 사이의 주요 충돌

Shean.T's Comment	Vocabulary	
<p>P가 P인줄 알았는데 사실 S(B)였어..이라는 좋은 핵심 논리. 이 논리가 최근 수능 빈 칸에도 쓰였으니 꼭 기억. 즉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였어.</p> <p>a. 첫 문장에서 inoculation은 제대로 아는 수험생이 전국에 거의 없을테니 그냥 넘어 가시면 된다.</p> <p>b. 두번째 문장에서 이게 뭔지 설명해준다. 하이픈 하이픈 사이에 있는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넘어가자. 해석해보니 '정신적 혼란에 열심히 싸우는 것이 미래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inoculate해준다'는 것. 뭐처럼? 백신처럼. 여기서 inoculate가 백신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일반화. 즉 정신적 혼란이 P인데, 이게 오히려 미래의 P를 백신처럼 도와줄 수 있다. 아, P가 P인 줄 알았는데 S구나.</p> <p>c. 다음 문장을 보니 AB할 게 나온다. 쉬운 거(A)할 때보다 어려운 거(B)할 때가 더 잘한다는 내용. 어렵고 힘든 게 B이자 S.</p> <p>답은 이 PS를 그대로 표현한 ④번. 선지에서 P,S를 딱 잡아야 한다.</p>	<p>1. hardship                    9. follow-up</p> <p>2. inoculation(참고) 10.</p> <p>3. vaccination                11.</p> <p>4. tricky                        12.</p> <p>5. adolescent                 13.</p> <p>6. thrive                        14.</p> <p>7. demanding                 15.</p> <p>8. deprive A of B            16.</p>	<p>1. 어려움, 고난                9. 후속의, 차후의</p> <p>2. 접종, 주입                 10.</p> <p>3. 백신, 예방접종            11.</p> <p>4. 까다로운                    12.</p> <p>5. 청소년                      13.</p> <p>6. 번창하다, 잘 자라다        14.</p> <p>7. 고된, 힘든                 15.</p> <p>8.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16.</p>

## KISS Logic & Interpretation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ouple of years ago, I became interested in what we call **hardship inoculation**. This is the idea that struggling with a mental puzzle(P) — trying to remember a phone number or deciding what to do on a long Sunday afternoon — inoculates you(S) against future mental hardships(P) just as **vaccinations** inoculate you against illness. There is good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small doses of mental hardship(S) are good for us. Young adults do much better on **tricky** mental puzzles when they've solved difficult(S,B) **rather than** easy ones(A) earlier. **Adolescent** athletes also **thrive** on challenges(S): we've found, for example, that college basketball teams do better when their preseason schedules are more **demanding(S)**. These mild initial struggles(S) are **critical**. **Depriving** our kids of them by making everything easier(A) is dangerous(P) — we just don't know how dangerous.

- ① Have Vaccinations Always Proven to Be Effective?(off)
- ② Physical Activities(off) as the Driving Force for Mental Health
- ③ Give Young Adults a Chance to Escape Academic Pressure!(off)
- ④ A Shot of Mental Hardship Vaccine to Ease Later Struggles(S)
- ⑤ Demanding Puzzles: Obstacles to **Follow-Up** Mental Activities(반)

2년 전쯤에 나는 소위 'hardship inoculation (고난 예방 접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백신 접종이 질병에 대비해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노력하거나 긴 일요일 오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퍼즐로 고심하는 것이 미래의 정신적인 고난들에 대비하여 여러분에게 예방 주사를 놔준다는 개념이다. 적은 양의 정신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꽤 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젊은 성인들은 예전에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들을 풀었던 적이 있을 때 까다로운 정신적인 퍼즐들을 훨씬 더 잘 푼다. 청소년기의 운동선수들 또한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내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 농구팀들이 자신들의 프리시즌 일정이 더 힘들 때 더 잘 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가벼운 초기의 힘든 일들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그것들을 빼앗는 것은 위험한데,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를 뿐이다.

- 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을까?
- ② 정신 건강 원동력으로서의 신체 활동
- ③ 젊은이들에게 학업 압박을 탈출할 기회를 주자!
- ④ 나중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신적 고난 백신 주사
- ⑤ 힘든 혼란: 이후 정신 활동에 대한 장애물

## Shean.T's Comment

### Grammar

①번: have no choice but to V를 아느냐 물어본 문제. 여기서 to는 뒤에 동사원형이 오는 to부정사. 노문제! cannot but V / cannot help Ving도 같은 의미

②번: 수일치. 주어가 'the precedence'니 노문제! 'Pica suggests'는 콤마콤마 삽입이므로 빼고 생각하자.

③번: '~에 직면해서'라는 '의미'적으로도 p.p. 형태가 맞고,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 with이 왔다. 능동이라면 목적어가 바로 왔겠지요. 노문제!

④번: 대놓고 what/that 물어보죠! 해당 자리는 know의 목적어 즉 명사절로 쓰임. 명사절에서 what 뒤는 불완전, that뒤는 완전. that 뒤를 보니 그냥 '주어'부터 없이 바로 had가 나왔네. what으로 고쳐야!

⑤번: neither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 가벼운 도치. 원래는 it was necessary겠지요. 노문제!

답은 ④번.

## Vocabulary

1. quantities	9. individually	1. 수량	9. 개별적으로
2. approximately	10.	2. 대략	10.
3. ratio	11.	3. 비(比)	11.
4. universal	12.	4. 보편적인	12.
5. intuition	13.	5. 직관	13.
6. have no choice but to V	14.	6. ~할 수밖에 없다	14.
7. precedence	15.	7. 우선함	15.
8. an adversary	16.	8. 적, 상대방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According to Pierre Pica, understanding **quantities approximately** in terms of estimating **ratios** is a **universal human intuition**. In fact, humans who do not have numbers **have no choice but** ① **to see the world** in this way. By contrast, understanding quantities in terms of exact numbers is not a universal intuition; it is a product of culture. **The precedence** of approximations and ratios over exact numbers, Pica suggests, ② **is** due to the fact that ratios are much more important for survival in the wild than the ability to count. ③ **Faced with** a group of spear-wielding **adversaries**, we needed to know instantly whether there were more of them than us. When we saw two trees we needed to know instantly ④ **that** had more fruit hanging from it. In neither case was it ⑤ **necessary** to enumerate every enemy or every fruit **individually**. The crucial thing was to be able to make quick estimates of the relative amounts.

\* enumerate: 일일이 세다

Pierre Pica에 따르면, 비율을 어림잡는 방식으로 양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직관이다. 사실, 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확한 수에 의해서 양을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인 직관이 아닌데, 즉 그것은 문화의 산물이다. Pica는 정확한 수보다 근사치와 비율의 선행은 비율이 수를 세는 능력보다 야생에서의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창을 휘두르는 적들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은지를 바로 알아야만 했다. 우리가 나무 두 그루를 보았을 때 어느 것이 그것에 매달린 과일을 더 많이 가졌는지를 즉시 알아야 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적 혹은 모든 과일을 하나씩 일일이 셀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양을 재빨리 어림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